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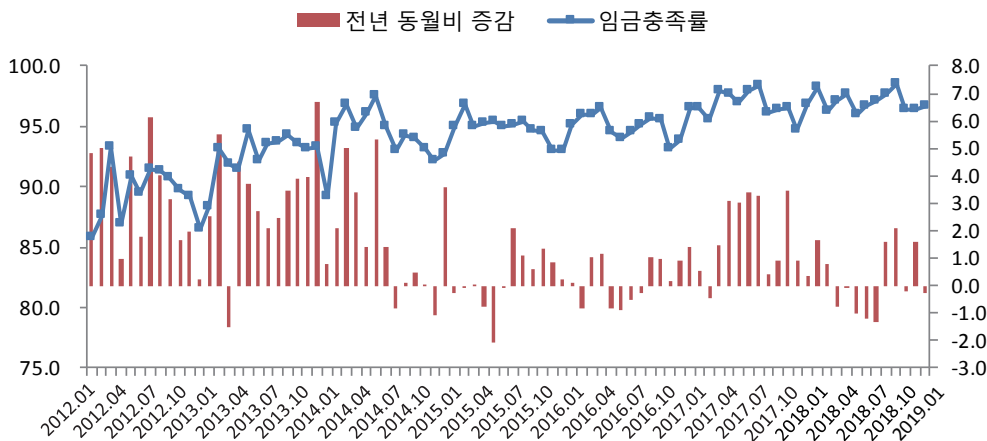
워크넷 구인구직DB를 이용한 2019년 1~2월 임금 동향

연보라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원)

- 2019년 2월 신규구인인원은 158천 명, 신규구직건수는 310천 건, 평균 제시임금¹⁾은 200.2만 원, 평균 희망임금²⁾은 207.2만 원으로 전체 임금충족률은 96.6%로 나타남.

(임금충족률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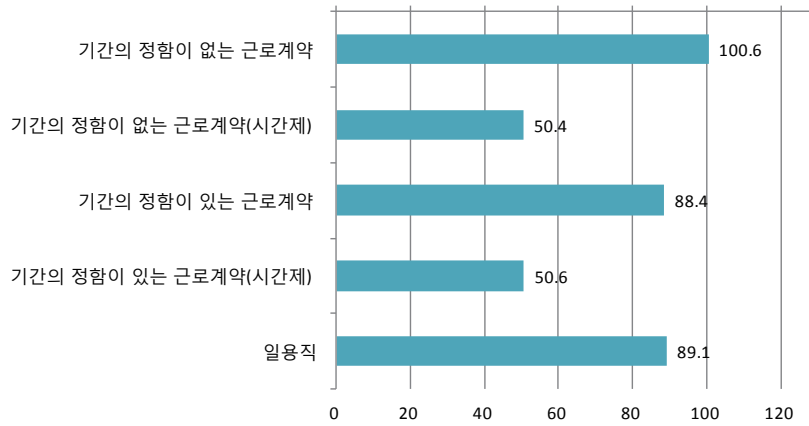
주 : 1) 임금충족률=(평균 제시임금/평균 희망임금)×100
 2) 임금에서 '분류불능'(응답자 오류) 및 특이값 제외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 구인구직DB」.

- 고용형태별 임금충족률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형태에서 100.6%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시간제)' 형태에서 가장 낮은 수치(50.4%)를 기록함. 시간제 근로형태의 낮은 임금충족률은 2월 시간제 근로형태에 대한 기업체의 낮은 제시임금에 기인함.

1) 구인업체가 구인서식에 기입한 취업조건으로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제시하는 임금.
 2) 구직자가 구직서식에 기입한 취업조건으로 구직자가 구인업체에 요구하는 임금.

〈고용형태별 임금총족률〉

(단위: %)



주 : 1) 임금총족률=(평균 제시임금/평균 희망임금)×100

2) 임금에서 '분류불능'(응답자 오류) 및 특이값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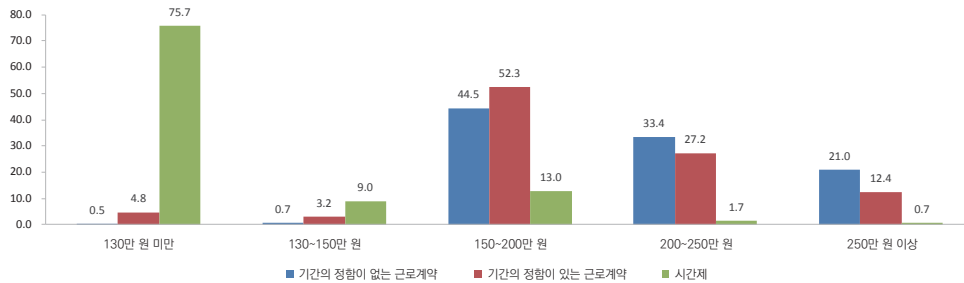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 구인구직DB」.

- 2월 고용형태별 제시임금대 비중을 보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및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서 전년동월대비 150만~200만 원대의 구인수요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가장 높은 구인수요 비중을 보임. 두 근로형태 모두에서 200만~250만 원대의 구인수요 비중이 전년동월대비 크게 증가하였음.

- 대부분의 구인업체에서 시간제 고용형태에 대하여 낮은 수준의 임금을 제시하고 있음.

〈제시임금대별 구인수요 비중〉

(단위: %)



주 : 1) 임금대별 구인신청건수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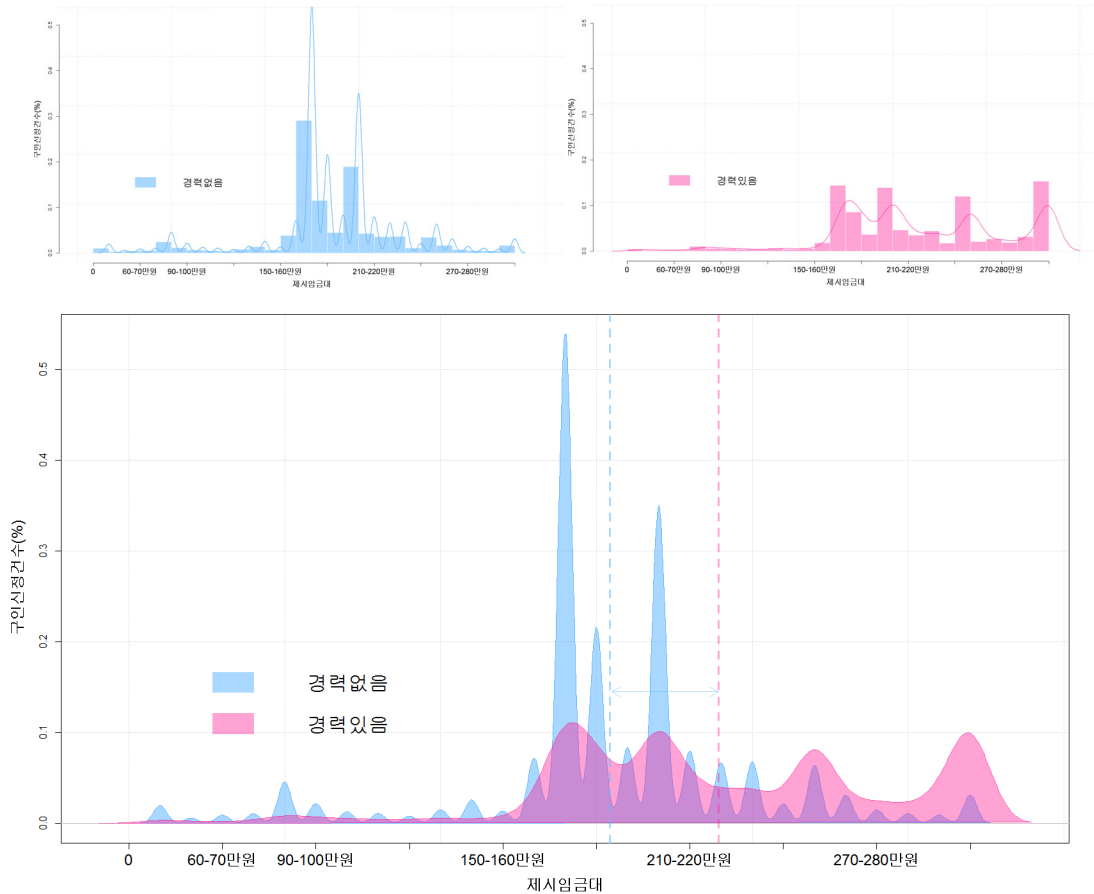
2) 제시 '월'임금임.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 구인구직DB」.

2019년 1월 기준 속성별 제시임금, 희망임금 분포 비교

- 임금대별 구인신청건수 비율을 통해 본 제시임금 분포는 경력유무별로 다소 차이를 보임.
 - 신규직에 대해 기업이 제시하는 임금은 주로 160만~210만 원대 등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경력직에 대해서는 좀 더 높은 임금대에 다수 분포함.
 - 그림의 실선으로 나타낸 분포 평균을 보면 신규직에 대한 제시임금 분포 평균은 180만 원대, 경력직에 대한 제시임금 분포 평균은 220만 원 이상에 위치함.

〈경력유무별 제시임금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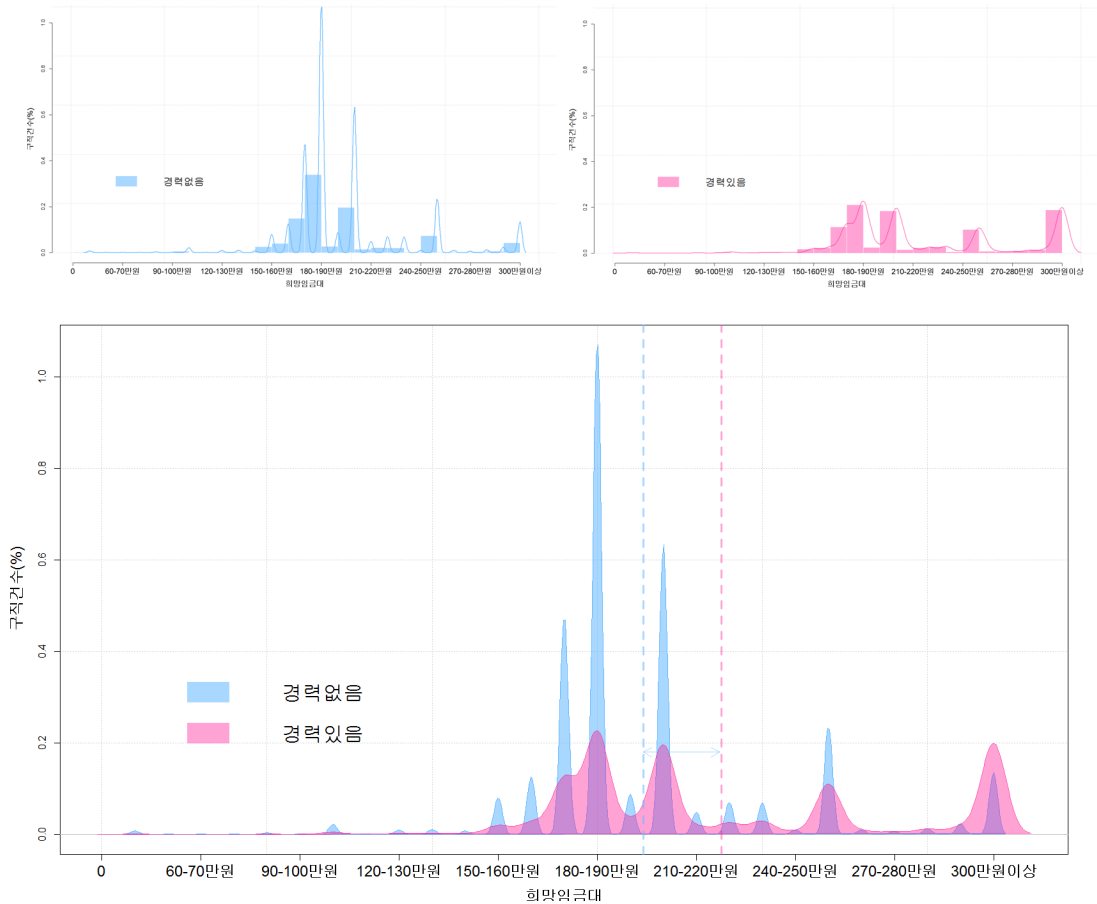


주 : 1) 2019년 1월 기준, 근로시간 및 고용형태를 구분하지 않은 전체 임금 데이터임.
 2) 제시 '월' 임금이며, '분류불능'(응답자오류) 및 특이값 제외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 구인구직DB」.

■ 임금대별 구직건수 비율을 통해 본 희망임금 분포는 경력유무별로 차이를 보임.

- 유경력자의 경우 250만 원 이상의 희망임금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가운데, 신규구직자의 희망임금 분포 평균은 200만 원대, 경력직에 대한 희망임금 분포 평균은 220만 원대 수준으로 나타남.

〈경력유무별 희망임금 분포〉



주 : 1) 2019년 1월 기준, 근로시간 및 고용형태를 구분하지 않은 전체 임금 데이터임.

2) 희망 '월'임금이며, '분류불능'(응답자오류) 및 특이값 제외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 구인구직DB」.